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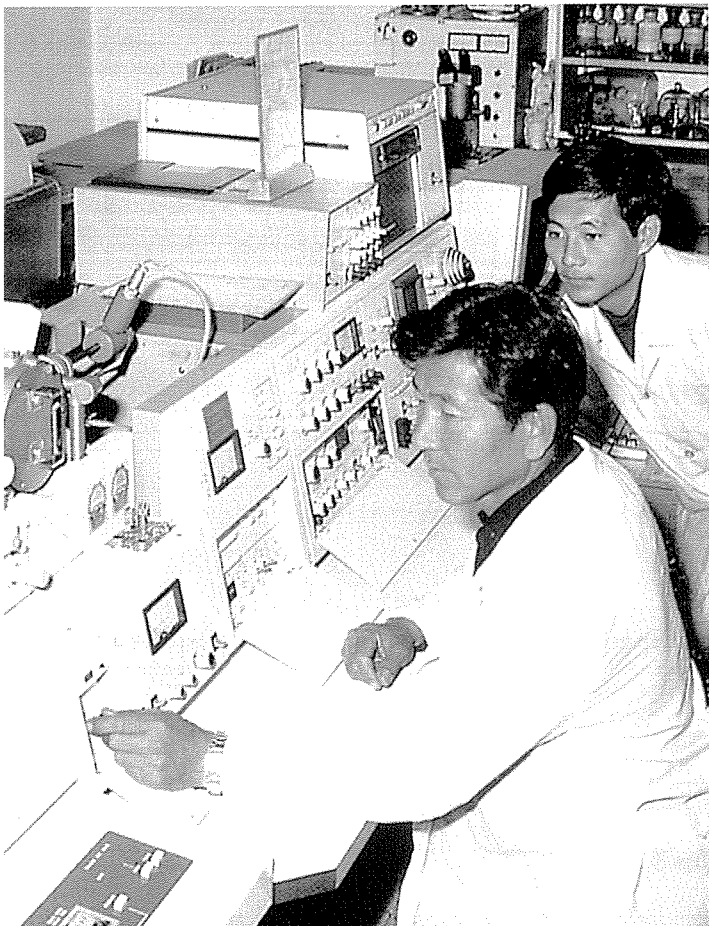
창립 50돌 맞은 '북한과학원'

해외 과학기술자 초청 성대한 행사 개최

북한 최고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이 2002년 12월 1일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이 경사를 맞아 2002년 11월 29일 평양에 있는 인민문화궁전에서 과학원 50주년 기념 보고회가 열렸다.

이 보고회에는 홍성남 내각 총리를 비롯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최태복 비서, 얼마 전 한국에도 경제시찰단 단장으로 왔던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박봉주 화학공업상, 변령립 교

평성시 과학원에서 농약을 분석하는 과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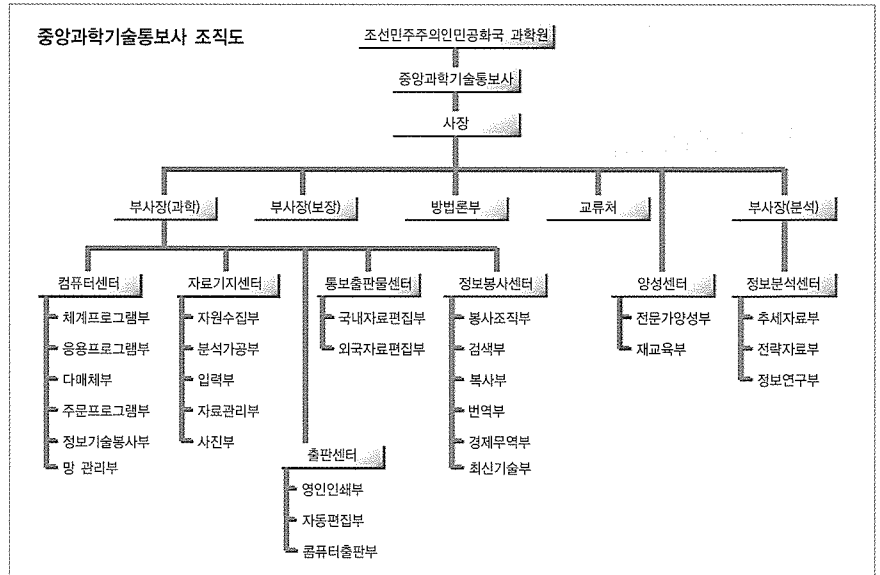
육상, 김수학 보건상 등 당과 내각의 중요한 인사와 함께 과학원 연구원들과 그외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해외에 있는 동포 과학자들도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재일본 조선인 과학기술협회 황철홍 회장 외 총 16명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송기뢰 재미동포과학기술협회 회장 외 4명,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 조선족 과학기술자협회 상임 부회장이며 비서장인 연변대의 허상립 교수 외 5명의 과학자가 참가했다. 특히 11월 27일 심양에서 필자와 함께 북한의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간 심양 발해대학의 천문갑 학장 등 중국 대표들은 모두 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과학자들이다.

북한의 과학원은 지난 50년간 북한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에 전력을 기울였으며 국방력 강화에도 커다란 공헌을 했다. 북한의 경제가 악화되어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려운 시기에도 과학원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은 동요되지 않았고,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지혜와 정력을 총동원하여 연구와 기술개발에 매진했다. 이들은 전자공학을 비롯한 중요과학 부문들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 데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 문제 전담

북한의 과학원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부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분리되어 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원에 통합된 것이다. 국가의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 외국과의 협력 등 제반 업무를 과학원이 관장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분야의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도 궁극적으로는 과학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로동신문에 발표된 과학원의 업적을 보면, 과학원은 수많은



과학연구 실험설비를 창안, 제작했으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들의 창조적이고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해방 후 불모지였던 북한의 과학기술이 모

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예멘에 수출한 스커드 미사일 등도 이러한 과학기술 발전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IT, BT, NT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기초과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북한 과학자들의 수학 실력은 매우 뛰어나다. 이번 평양방문에서 1995년에 출판된 <세계에 이름 떨친 우리나라 소년들>이라는 책을 구입했는데, 이 책에는 예술계와 체육계를 비롯한 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소년, 소녀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가운데 64개국 351명이 참가한 제34차 국제수학올림픽(1993년 이스탄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리광철, 윤철수, 류철준이 은메달을, 그리고 장룡석과 박철만이 동메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이중 박철만 군은 현재 심양의 실리뱅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북한으로 가는 E-mail을 이 실리뱅크가 서비스하고 있다. 북한의 과학원 2국도 이 실리뱅크를 통해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 조선인 과학기술협회와 E-mail을 주고받고 있다.

컴퓨터센터, 전문가 100여 명 모여 프로그램 개발 몰두

과학원 산하에는 여러 연구기관이 있어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과학과 기술) 2002년 2월호 참조). 연구기관 가운데 하나인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최신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과 정보 서비스, 컴퓨터망 체계의 확

립을 위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기술, 데이터베이스, 인력양성 부문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독자적인 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유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도 교류·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3년에 창설된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국가과학기술정보의 중심기관으로서 컴퓨터망을 통한 정보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이 기관은 7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이 컴퓨터센터이다. 이곳에서는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올렸다. 최근 개발한 제품들을 보면 <혁명의 생산 백두산>, 다국어 과학기술사전인 <광명 2002>, 낚시게임 프로그램인 <낚시 명수>, 속독훈련 프로그램인 <매> 등이 있다. 국내외에 잘 알려진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광명> 정보 서비스 체계는 자료기지 검색, 전자우편, 전자소식, 웹사이트 검색, 전자도서관, 오락센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광명>의 특징은 조선어의 특성과 북한의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 기술과 자체의 자료기지 엔진 기술에 기초하여 인터넷과의 완전한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루속히 이 <광명>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남북의 과학기술 정보교류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글_박찬모 | 포항공대 대학원장